

#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들

글 | 이창건 \_ 전력기준위원회 위원장

10년 전 필자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자력 및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 기술자문과 기술 원조 현황 조사 및 앞으로의 기술개발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UN여권을 받아 들고 영국 출신인 미국인 룬도 박사와 함께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순방하게 되었다. 기술원조 자금을 아무리 퍼부어도 별효과가 없자 IAEA는 우리에게 현장을 방문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상을 파악한 후 해결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숨은 의도였다.

## IAEA 요청으로 아프리카 기술원조 현황 조사

몇 나라를 거친 다음 가나에 도착하자마자 기술개발 전략에 대한 강연을 요청해 룬도 박사는 세계 최초의 업적으로 알려진 자기의 연구업적, 즉 생체내에서의 생물학적 반감기 측정연구 내용을 발표했고, 필자는 우리 나라의 기술 현황과 원자력발전 계획에 대해 한 시간씩 설명했다. 강연 후의 질문시간에 어떤 사람이 “한국은 중화학공업 기반이 튼튼하니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겠지만 가나는 농업국가여서 그렇게 할 처지가 못된다”는 체념 어린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 같이 대답했다.

“2차 세계대전 때와 그 이후에 가나는 한국인들보다 잘 살았다. 한국전쟁 후에는 훨씬 더 잘 살았다. 그때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고생했고 잠자리조차 변변치 못해 떨면서 잤지만 그래도 교육과 훈련에 정성을 다한 보람이 있어 선진국 문턱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2주간 굶어본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

오. 눈 위에서 잠을 자 본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시오. 굶 주리면서도 아들딸을 대학에 보내고, 또 새벽마다 국가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시오.”

아무도 손들지 않았다. 다만 필자만이 세 번 다 손을 높이 들 뿐이었다. 필자는 그것이 잿더미에서 허덕이던 한국이 공업국가로 탈바꿈한 비결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능력’이라고 강조하며 말을 이었다.

“기술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연구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구란 무엇인가. 남의 기술 한 가지만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표절’이 되고 만다. 그러나 많은 문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늘 많이 훔치는 행위를 우리는 ‘연구’라고 부른다. 따라서 연구소란 남들의 기술을 항상 많이 도둑질하되 결코 표절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거나 걸려들지 않으면서 남들의 좋은 것들을 몽땅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도둑놈들의 소굴’ 구실을 하는 곳이다. 도둑과 연구원의 공통점은 둘 다 자기 일을 남몰래 한다는 점이고, 또 그것을 남들이 잠잘 때 외롭게 수행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다른 점은 하드웨어 도둑은 빛을 싫어하는 반면 소프트웨어 도둑은 밤에도 불을 환히 켜놓고 남의 물건 훔치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는 차이이다. 그런 면에서 이 나라의 미래는 밝다. 왜냐 하면 이 자리에 유능한 도둑놈들이 이렇게 많이 들끓을 정도로 도둑의 소굴이 번창하고 있고, 특히 저기 앉아 계시는 연구소 소장님은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더 잘하도록 온갖 재주를 다 가르치는 뛰어난 두목으

로 소문나 있는 까닭이다.”

필자의 얘기가 끝나자 웃으며 손뼉 치는 소리가 꽤 오래 울려 퍼졌다. 그때 앞에 앉아 있던 룬도 박사가 마이크를 넘겨달라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렸을 때 나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아라비아 야화를 즐겨 읽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강의를 들으니 이 박사는 알리바바(Ali Baba)가 아니라 바로 ‘이 바바(A Lee Baba)’이며 40명의 도둑놈 두목이 아니라 4천만 한국인 도둑놈들의 두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이 기술개발을 잘한 것은 이 박사 같은 도둑놈 두목들이 도둑놈의 소굴에서 외국 기술을 밤낮 표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20세기의 도둑들의 무대는 아라비아가 아니고 한반도이다. 여러분, 제 얘기가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 ‘인력양성’ 과 ‘기술개발’ 중요성 설파

청중들은 폭소하고 박수치며 “웁소! 웁소!”를 외쳤다. 큰일이다. 같은 일을 하라고 IAEA에서 보낸 동료가 필자를 궁지로 몰아넣고는 역이용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체면이 깎이는 것은 괜찮지만 앞자리에 앉아 있는 신문기자들이 한국 기술은 전부 외국 것을 표절한 것이라고 이 아무개가 가나에 와서 실토하며 양심선언까지 했다고 쓰고, 그것이 전파를 타고 세계 각국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앞이 캄캄해졌다. 난처해진 필자는 우선 룬도 박사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다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변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은 한 시간 전에 룬도 박사의 강의를 듣고 과연 그가 세계적인 학자고 권위 있는 분임을 재확인했을 것이다. 필자는 그의 이야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 나라의 옛 이야기 하나를 인용해 보려 한다.

약 600년 전 우리 나라에 임금님의 정치고문과 태자들의 스승으로 임금님의 신임이 두터운 ‘무학대사’라는 고승이 계셨다. 하루는 임금님이 장난삼아 그를 골탕 먹이려고 자기 눈에는 대사님이 돼지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 말에 무학대사는 껄껄대고 웃으며 과연 지당한 말씀이라고 대꾸했다. 왜냐 하면 그는 자신이 아주 못생긴 돼지

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담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을 알아차린 임금님이 다음엔 대사에게, 그럼 짐은 어떻게 보이느냐고 물으니까 무학이 말하기를 임금님은 부처님처럼 인자하게 보인다고 했다. 어째서 그러냐고 물으니 무학대사는 자고로 마음 속에 돼지가 가득 차 있으면 옆 사람들 모두가 돼지처럼 보이고 부처가 들어있는 훌륭한 사람은 남들도 부처같이 인자하게 보이는 법이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룬도 박사는 나를 도둑놈의 두목이라고 했지만 내 눈에는 그가 세계적인 학자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고 계시는 인자한 신사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나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이 들어 있어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현명한 여러분들의 처분에 맡기겠다.”

룬도 박사의 이야기가 옳다며 박수치던 청중 모두는 이번엔 필자의 말이 맞다며 “웁소!”를 외치고 박수쳤다. 이렇게 해서 필자는 무학대사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UN 전문가에게는 방문국이나 UNDP에서 교통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불문율이지만 그때 부패하기로 소문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우리에게 차와 운전기사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빌려 직접 운전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자동차가 길거리를 누비고 렌트카 업소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대견스러웠다. 그리고 룬도 박사는 미국 거주자답게 자동변속기 자동차만 운전한 줄 알아 수동변속기 자동차밖에 없는 그 곳에서는 한국인의 국제경쟁력이 미국인보다 훨씬 강함을 과시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필자는 한 시간 강연 후 칠판에 다음과 같이 크게 썼다.

“We like Africa. We love Africa. We need Africa in terms of Ah-Free-Car!”

그러자 앞자리에 앉아있던 높은 분이 일어나더니 미안하게 되었다며 사과했고, 그 다음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보내주었다. 그것이 소문이 났는지는 몰라도 룬도 박사와 필자는 그 다음부터 가는 나라마다 자동차를 제공받아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 그때마다 룬도 박사는 “We like Ah-Free-Car!” 라며 빙긋이 웃곤 했다. ㉔

